

본 연구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물은 2001년부터 2019년 4월까지의 학위논문 16편 학술지 9편 총 25편이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연구물들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를 반영하여 랜덤 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Cohen(1977)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0.25로 나타나 중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선행연구인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 연구에서의 효과크기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하위유형 중에는 신체·물리적 폭력이 0.34, 언어·정서적 폭력이 0.28로 나타나 학교폭력 피해는 가정폭력의 하위 유형인 신체·물리적 폭력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유형 중 부부폭력을 목격한 경험과 방임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는 0.24로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기법인 메타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사회적 시사점과, 제한점,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 주제어: 메타분석
학교폭력
가정폭력
가족폭력
아동폭력
아동학대

- 1)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제1저자
- 2)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공동저자
- 3)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교신저자 (kke1023@naver.com)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 메타분석 연구

Meta-Analysis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chool and Domestic Violence

고 은 주¹⁾ 장 영 숙²⁾ 김 고 은³⁾
Eun Joo Go Young Suk Zang Ko Eun Kim

I. 서론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범죄 신고율을 보면 2015년 11,908건, 2016년 13,995건, 2017년 14,707건으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며 가정폭력 범죄의 재범률 통계를 보면 지난 2015년 4.1%였던 재범률은 2018년 8.9%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경찰청, 2018). 또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순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9). 이를 통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피해 문제는 여전히 사회문제를 재확인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정의는 연구자마다 약간씩 상이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반복적·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성적·정신적 손상, 고통,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적극적인이거나 철회적인 모든 폭력행위로 정의한다(고은주, 2015). 또한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한 정의).

특히 다수의 연구에서 가정폭력이 학교폭력 피해와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이 교내폭력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0년 7월 폭력예방교육 실태 및 폭력에 대한 인식 조사). 가정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몇몇 메타 분석 연구들이 이뤄졌다(Evans, Davies, & DiLillo, 2008; Wolfe, Crooks, Lee, McIntyre-Smith, & Jaffe, 2003). 그 중 Evans 외(2008)는 가정폭력이 아동, 청소년의 공격적, 폭력적 행동과의 관계성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피해 변인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는데 관련성이 높은 변인 중 하나로 가정폭력이 언급되고 있다(노충래,

이신옥 2003; 배준우, 2010; 장지영, 2004). Kolbo, Blakel 그리고 Engleman(1996)는 특히, 부모 폭력의 목격도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승출(2012)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의 상관관계 연구결과에서 부부폭력 목격 경험과 학교폭력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가정폭력 노출 경험은 학교폭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외 다수의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상관계수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다수의 연구물을 대상으로 할 경우 가정폭력 피해의 여러 유형 중 어느 유형이 학교폭력 피해와 상관관계가 높은지 명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가정폭력의 요인 중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변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전체적인 요인들의 효과크기를 보고자 하였다. 메타분석은 개별 연구에서 보고하는 양적인 연구결과를 통계적인 변환을 통해 서로 비교 및 종합 가능한 동질적 성격의 통계 수치로 전환하여 분석하는 통계기법이며 연구자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연구자의 주관에 개입할 여지가 비교적 낮은 연구 방법이다(Glass, McGaw, & Smith, 1981).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과 연구 환경 등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야 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제약으로 단일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을 완전히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메타분석은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여 일반화가 가능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Glass et al., 1981).

본 연구에서는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철저하게 분석에 포함될 연구물을 선정하였으며 메타분석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물들의 결과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Borenstein, Hedges, Higgins, Rothstein, 2009).

메타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사회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메타분석을 위한 연구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KISS), 국회전자도서관 등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검색 주제는 ‘가정폭력’, ‘가족폭력’, ‘학교폭력’, ‘아동폭력’, ‘아동학대’이다. 이 주제를 통해 선정된 연구물은 총 103편이었다. 총 연구물 중 질적 연구 결과만 제시된 연구물 28편,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가해와의 학위 연구물 29편, 학술지에 중복 게재된 연구물 9편, 효과크기 변환이 불가능한 통계치를 사용한 연구물 12편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한 총 25편의 연구물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대상 연구물의 특징

번호	연구자	연도	학교급	출판유형	표본크기	효과크기
1	고미정	2013	초, 중, 고등	학술지	2,013	0.08
2	곽현미	2010	초등	학위	271	0.34
3	김경록	2005	고등	학위	284	0.55
4	김남현	2005	중등	학위	338	0.22
5	김미영	2013	중고등	학위	500	0.34
6	김영순	2007	중등	학술지	777	0.31
7	김은영	2014	중고등	학술지	2,500	0.22
8	김재영	2005	고등	학위	463	0.25
9	김효진, 이재연	2004	초등	학술지	336	0.14
10	박다애	2001	중등	학위	370	0.40
11	박순지	2015	초중등	학위	2,017	0.09
12	배준우	2010	중고등	학위	417	0.47
13	신복기, 이성진	2012	중고등	학술지	205	0.21
14	신성철 백석기	2014	초중등	학술지	379	0.43
15	심재홍	2007	중등	학위	722	0.25
16	아영아, 정원철	2014	중고등	학술지	497	0.38
17	이겨라	2012	중등	학위	280	0.11
18	임신일 이정미	2013	고등	학술지	333	0.27
19	임희복	2003	고등	학위	302	0.15
20	장초록	2017	초중고	학위	10,484	0.24
21	전혜은	2013	고등	학위	200	0.26
22	정재은	2015	중고등	학위	223	0.22
23	조민경, 조한익	2019	중등	학술지	1,937	0.08
24	최효진	2006	고등	학위	286	0.20
25	허진아	2017	초중등	학위	7,071	0.06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전체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재변인에 따른 범주형 변수별 분석 결과,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 1) 출판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 3) 가정폭력 유형에 따른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연속형 변수인 연도에 따른 메타회귀분석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3. 측정도구

이 연구는 누적된 양적 연구들에 대한 재검토 측면에서 연구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효과크기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동질성 검정에 따른 분석모형 선택, 출판편향 검증, 전체 효과크기, 출판유형 및 연구 설계에 따른 효과크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효과크기, 가정폭력의 유형별 효과크기, 출판연도에 따른 메타회귀분석 효과크기 등을 살펴보았다.

4. 분석방법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물들을 메타분석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연구물 및 학술지 연구물을 검색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통계 프로그램은 CMA2 (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sion 2.0)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선별된 연구물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코딩하였다. 코딩항목은 연구자, 연구물 출판연도, 상관관계수, 표본 수, 가정폭력의 유형, 연

구물 유형, 대상자의 특징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효과크기를 산출한 공식은 메타분석을 통하여 상관관계수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관계수를 활용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상관관계수 자체를 사용하기보다 Fisher's z로 변환한 후 해석의 편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형태인 상관관계수 형태로 분석된 결과를 다시 변환하여 보고하였다. 사용된 공식은 다음과 같다(Borenstein et al., 2009).

$$ES_{zr} = .05 \times \ln\left(\frac{1+r}{1-r}\right) \quad \text{공식 1}$$

$$V_z = \frac{1}{n-3} \quad \text{공식 2}$$

$$SE_z = \sqrt{V_z} \quad \text{공식 3}$$

$$r = \frac{e^{2z} - 1}{e^{2z} + 1} \quad \text{공식 4}$$

먼저 다음 공식 1을 통하여 상관관계수를 Fisher's z로 변환하였다. 공식 2를 통하여 분석을 산출하였다. 공식 3을 통하여 표준오차를 산출하였다. Fisher z로 전환된 효과크기를 통해 분석된 결과 치를 다시 공식 4를 통해 상관관계수로 복원하여 최종적으로 보고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먼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물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산출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물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산출하여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상관관계 효과크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질성 검정에 따른 분석모형 선택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물 25편 중 학위 연구물은

16편, 학술지 연구물은 9편이었다.

메타분석에서 연구물의 수는 연구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술적으로는 2편 이상만 되어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Valentine, Pigott, & Rothstein, 2010).

총 25편의 연구물을 대상으로 먼저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질성은 $Q(24) = 1419.76, p < .05$ 수준에서 유의하므로 개별 연구간 효과크기의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연구물의 효과크기 간 이질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질성을 반영하여 랜덤 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동질성 검정 결과

K	Q-value	p-value	I ²
25	1419.76	0.000	98.31

* K=연구 수, Q-value=동질성 검정 통계량, p-value=동질성 검정 통계량의 유의수준 값, I²=이질성 정도

2. 출판편향 검증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개별 연구물들의 효과크기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X축을 효과크기(Fisher's z)로, Y축을 표준오차로 한 깔대기 도표(funnel plot)를 통해 효과크기의 분포를 산출하였다. 출판편향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Funnel plot을 분석한 결과, 대칭축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으므로 출판편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판편향을 검증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Begg와 Mazumdar(1994)가 제시한 순위 상관을 활용하여 표준오차와 효과크기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

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p > .05$). 따라서 출판편향이 없는 것으로 예측되는 위 결과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Egger, Smith와 Minder(1997)가 제시한 방법을 통해 출판편향을 분석한 결과 Egger 외(1997)의 회귀절편은 0.86, 표준오차는 2.77로 회귀절편의 유의성을 양측 검증한 결과, $p > .05$ 로 나타나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출판편향이 없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아울러 추정치 가감법(trim and fill)의 출판편향 검증 실시 결과에서도 추정 값과 관측 값이 같았으므로 출판편향이 없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출판편향을 검증하기 위한 trim과 fill 방법에서는 예컨대 표본수가 적은 연구가 요약 크기의 왼쪽보다 오른쪽에 많을 경우 왼쪽에 있어야 할 연구들이 없어진 것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경우 추정치 가감법은 없어진 연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분석에서 그 연구들을 추가하여 요약 효과크기를 다시 계산한다(Duval & Tweedie, 2000).

표 3. 추정치 가감법(trim and fill) 검증 결과

	Studies trimmed	ES	95% CI
Observed value	-	0.25	0.20-0.30
Adjusted value	0	0.25	0.20-0.30

* ES 효과크기, 95% CI-95% 신뢰구간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통계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출판편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3. 전체 효과크기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연구물 각각을 하나의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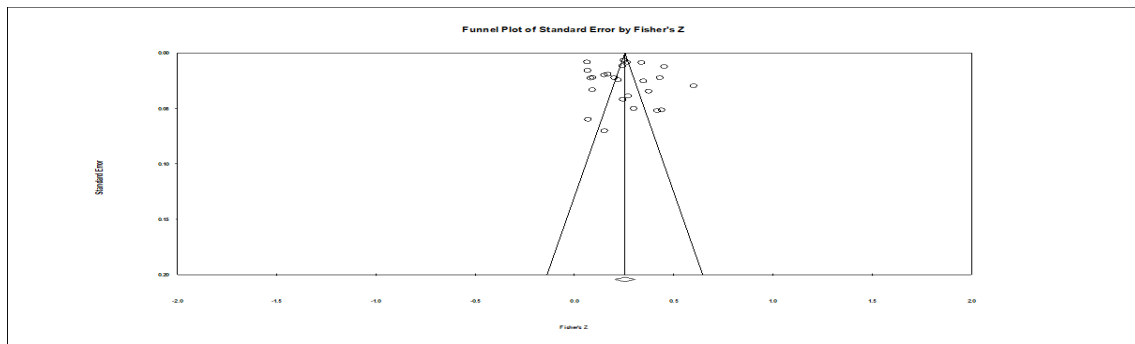


그림 1. 전체 분석대상 연구물의 funnel plot

위로 사용하여 랜덤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여 전반적으로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의 상관관계 전체 효과크기는 0.25였고, 95% 신뢰구간은 0.20~0.30이었다. Cohen(1977)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0.1은 작은 효과크기, 0.25는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 0.5 이상은 큰 효과크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의 전체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0.25로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효과크기는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랜덤효과 모형을 사용한 전체 효과크기

K	ES	95% CI	Z	p-value
25	0.25	0.20-0.30	9.86	0.00

* K 효과크기 수, ES 효과크기, SE 표준오차, 95% CI-95% 신뢰구간

다음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총 25편 연구물의 forest plot은 그림 2와 같다.

4. 출판유형 및 연구 설계에 따른 효과크기

연구물의 출판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학술지에 게재된 출판 연구물의 경우 효과크기가 0.23으로 나타났으며 학위 연구물의 경우 효과크기가 0.26으로 나타나 학위 연구물의 효과크기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출판된 논문인 학술지의 경우 학위 논문보다 전체 효과크기가 과대 추정되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다(Cooper, 1998). 학술지 연구물의 효과크기가 학위 연구물보다 크며 출판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경우 출판편향을 의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학위 연구물의 효과크기가 다소 높으며 $Q(1) = 0.34, p\text{-value} > .05$ 로 나타나 출판유형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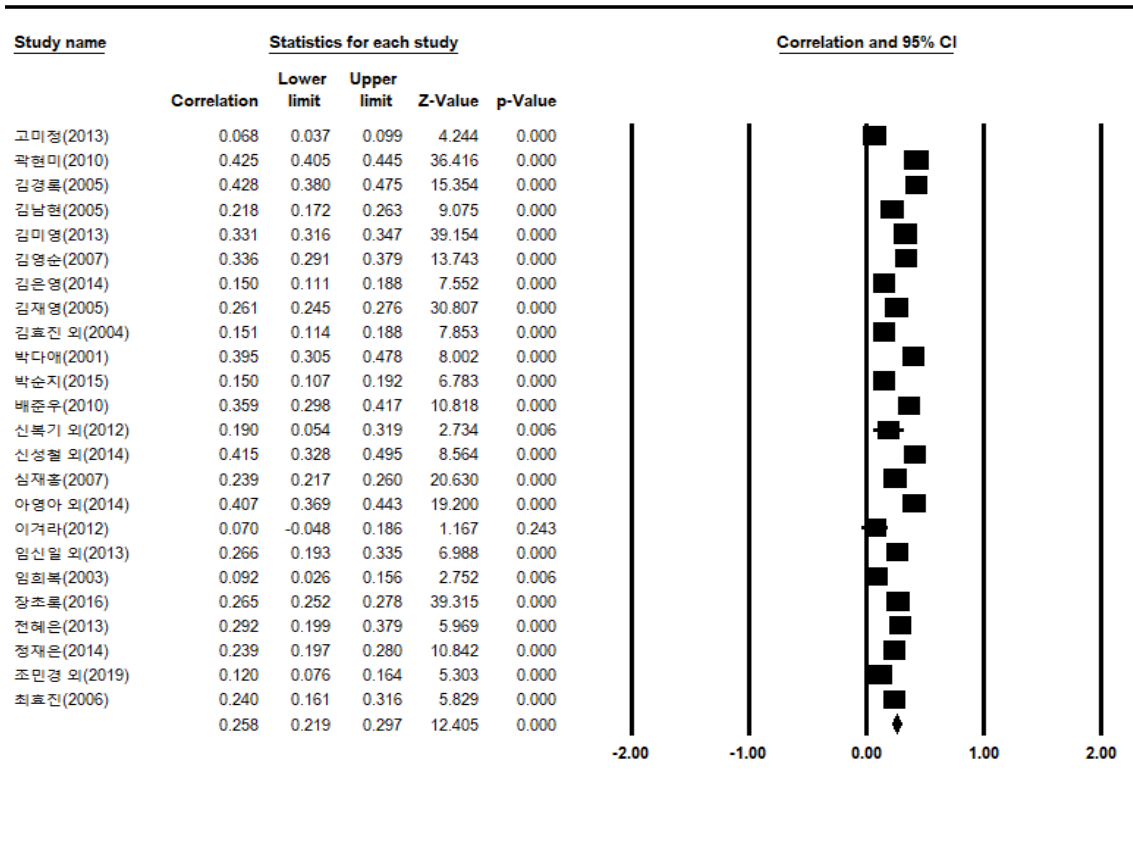


그림 2. 전체 분석대상 연구물의 forest plot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판편향이 없는 것으로 예측하는 출판편향 검증 결과를 지지한다.

표 5. 출판유형에 따른 효과크기

	범주	K	ES	p-value	95% CI
출판 유형	학위	16	0.26	0.00	0.20-0.32
	학술지	9	0.23	0.00	0.15-0.31

* K 효과크기 수, ES 효과크기, SE 표준오차, 95% CI-95% 신뢰구간

5.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효과크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하기 위하여 학교 급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학교급은 초등학교 0.36(0.32~0.4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0.28(0.24~0.32), 중학교 0.24(0.18~0.29)로 나타나 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 효과크기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의 경우 효과크기가 0.31, 남학생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0.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의 상관관계가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남녀 모두의 경우 0.29의 상관관계 효과크기가 산출되었다.

표 6. 대상자 특성에 따른 효과크기

	K	ES	p-value	95% CI	
학교급	초등	32	0.36	0.00	0.32-0.41
	중등	19	0.24	0.00	0.18-0.30
	고등	42	0.28	0.00	0.24-0.32
성별	남	7	0.25	0.00	0.14-0.35
	여	33	0.31	0.00	0.26-0.36
	남녀	104	0.29	0.00	0.26-0.32

* K 효과크기 수, ES 효과크기, SE 표준오차, 95% CI-95% 신뢰구간

6. 가정폭력의 유형별 효과크기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유형별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물에서 제시한 가정폭력의 유형은 크게 직접적 폭력 경험인 신체·물리적 폭력, 언어·정서적 폭력, 방임, 억압과 간접적 폭력 경험인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있었다. 유형별 효과크기의 차이가 $Q(3) = 9.44, p < .05$ 인 것으로 나타나 유형별 효과크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가정폭력의 유형에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별 효과크기 또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가정폭력 하위 유형 중 신체·물리적 폭력이 0.34로 학교폭력 피해와 상관관계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언어·정서적 폭력의 효과크기가 0.28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효과크기는 95% 신뢰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을 상회하는 상관관계 효과크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부부폭력 목격경험과 방임의 경우 효과크기가 0.24로 나타나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결과로 보았을 때 직접적인 신체·물리적 폭력이나 언어·정서적 폭력에 노출된 경우가 방임과 간접적인 폭력 경험인 부부폭력 목격 경험보다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 가정폭력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

	K	ES	p-value	95% CI
신체·물리적 폭력	22	0.34	0.00	0.28-0.40
언어·정서적 폭력	26	0.28	0.00	0.22-0.34
방임	18	0.24	0.00	0.17-0.31
부부폭력 목격 경험	26	0.24	0.00	0.19-0.30

*K 효과크기 수, ES 효과크기, 95% CI-95% 신뢰구간

7. 출판연도에 따른 메타회귀분석 효과크기

본 연구에서는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속형 변수인 연도에 따른 효과크기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메타회귀분석을 통하여 연도에 따른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 효과크기 경향성을 분석하여 연도의 흐름에 따른 효과크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출판연도에 따른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울기 계수가 0.00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한선은 0.001, 상한선은 0.0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울기 계수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p < .05$ 로 나타나 이러한 기울기 계수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를 살펴본 결과 최근 연도일수록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의 상관관계 효과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근에 발표된 연구물일수록 가정폭력 경험과 비행의 상관관계 효과크기가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신선인(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출판연도의 메타회귀분석 결과에 따른 효과크기는 표 8과 같으며 그림 3을 통해 산점도로 나타내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축적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계량화하고 학교폭력과 가장 상관성이 높은 가정폭력 유형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범주형 변수 분석을 통해 출판유형에 따른 효과크기, 학교급 및 성별과 같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상관계수 효과크기를 분석하였으며 연속형 변수 분석을 통하여 연구물 출판연도에 따른 상관계수 효과크기를 분석하여 연도의 흐름에 따른 효과크기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상이한 상황과

표 8. 메타회귀분석 결과

	ES	95% CI		Z-value	p-value	
		Lower limit	Upper limit			
출판 연도	기울기	0.007	0.001	0.013	2.181	0.029
	절편	-13.00	-24.97	-1.04	-2.13	0.03

* K 효과크기 수, ES 효과크기, SE 표준오차, 95% CI-95% 신뢰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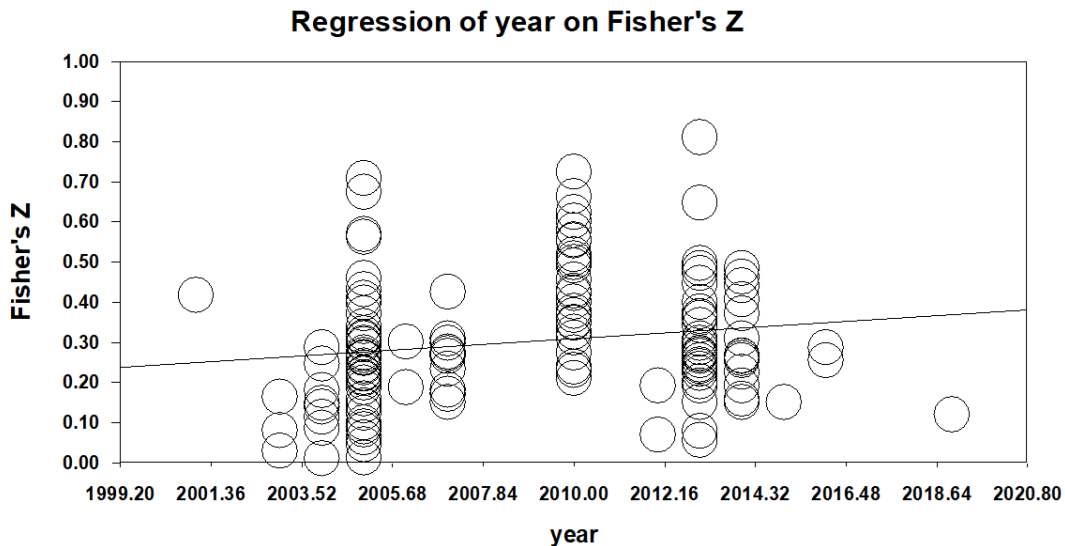


그림 3. 출판연도에 따른 메타회귀분석 결과

맥락에서 수행된 개별적인 연구들을 체계적인 틀 속에 통합하고 보다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 효과 크기는 0.25로 분석되었다. Cohen(1977)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0.25 이상일 경우 중간 수준, 0.4 이상일 경우 높은 수준의 효과크기를 나타낸다고 판단하는데 본 연구 결과 효과크기는 0.25로 분석되어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라 할 수 있다. 또한 95% 신뢰구간이 0.20~0.30으로 나타나 0 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의미한 효과크기 결과이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의 상관관계의 효과크기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을 학교폭력 피해의 전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관련성이 있는 의미있는 요인 중에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가정폭력 피해가 높아지면 학교폭력 피해 또한 높아진다는 점을 보았을 때 가정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양상이 매우 낮으므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적극적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일평균 100여건으로 지난 2014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경찰청, 2015).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사회적 노력을 통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한다면 학교폭력 피해 예방에도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가정폭력의 유형별 효과크기에서는 유형별 효과크기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가정폭력의 하위 유형이 학교폭력과 상관관계 효과크기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하위 유형의 세부적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하위 유형 중 신체·물리적 폭력이 0.34로 학교폭력과의 상관관계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언어·정서적 폭력의 상관관계 효과크기가 0.28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직접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되었을 경우 증상 수준의 상관관계 효과크기가 나타나 학교폭력 피해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부부폭력 목격경험과 방임의 경우 효과크기가 0.24 로 나타나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직접적인 가정폭력 경험

이 간접적인 가정폭력 경험보다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직접적인 가정폭력 경험 중에서도 신체·물리적 폭력이 언어·정서적 폭력이나 방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 효과 크기가 나타났다.

셋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의 상관관계 효과크기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먼저 학교급에 따른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초등학생의 경우 0.36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0.24, 고등학생은 0.28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보다 상관관계 효과크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은 초등학생 시기에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학생은 0.31, 남학생은 0.25인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관관계 효과크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연구물이 남녀 학생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보다는 남녀 통합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성별의 차이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의 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의 출판연도에 따른 상관관계 효과크기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연구물일수록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 효과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며 전학, 편입 사실 등에 대한 비밀엄수를 하는 등의 법률 시행령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통하여 가정폭력이 학교폭력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연구물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향후 해외 연구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석을 추가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의 범위를 세분화 하고 확장하여 분석대상 연구물을 선정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보는 것은 본 연구에서 나아가 보다 방대한 자료 분석을 시행할 수 있는 연구가 되리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성별에 따른 상관관계 연구가 없으므로 성별에 따른 표본수가 많지 않았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 성별 및 기타 특성별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의 상관관계를 도출한다면 이와 같은 후속 연구를 포함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메타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19년간 이루어진 선행연구물을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수량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결과,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의 상관관계 효과크기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즉,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가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학교폭력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을 가정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경찰청(2015). 경찰청 가정폭력 검거 건수 상반기 조사. 브레이크뉴스.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04678§ion=sc2에서 2015년 10월 28일 인출
- 경찰청(2018). 경찰청 가정폭력사범 검거 건수·재범률.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10/667387/>에서 2018년 10월 25일 인출
- 고미정(2013).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가해·피해와의 관계. **형사사법연구**, 3(1), 81-105.
- 고은주(2015). 가정폭력 피해여성 대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현미(2010). 아동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피해·가해와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2018).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W&=moe&m=0204&opType=N&boardSeq=78346>에서 2019년 8월 27일 인출
- 김경록(2005).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과의 관계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현(2005). 가정폭력과 대중매체폭력이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2013).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북지역 중등학교 여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순(2007).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에니어그림연구**, 4(1), 71-97.
- 김은영(2014).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폭력피해 및 가정폭력 목격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1(1), 1-21. doi:10.25023/kapsa.11.1.201405.1
- 김재영(2005). 실업계 고교에서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진, 이재연(2004). 초등학생의 가정폭력노출과 또래폭력의 관계. **아동과 권리 연구**, 8(3), 413-437.
- 노충래, 이신옥(2003).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부폭력 목격경험, 아동학대 피해경험, 내적 통제감 및 학교생활 인식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6), 1-35.
- 박다애(2001).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지(2015). 가정학대 피해가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에 미치는 영향: 교사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준우(2010).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복기, 이성진(2012). 청소년의 가정폭력, 학교폭력, 우울불안, 자살 간의 관계: 가정위탁, 양육시설, 쉼터,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4, 281-318. doi:10.15299/jk.2012.

- 08.44.281
- 신선인(2008).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아동,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3, 153-182. doi:10.16975/kjfs.2008.23.005
- 신성철, 백석기(2014).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 **한국치안행정논집**, 11(1), 23-43. doi:10.25023/kapsa.11.1.201405.23
- 심재홍(2007). 중학생의 가정환경과 학교폭력간의 관련성 연구: 남녀 학생의 차이를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아영아, 정원철(2014).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정신건강 및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34, 81-108.
- 이겨라(2012). 부모자녀관계가 학교폭력행동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도덕성을 매개 변인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출(2012).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29, 116-135.
- 임신일, 이정미(2013). 남자 고등학생의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의 관계. **학교사회복지**, 26, 27-45.
- 임희복(2003). 가정폭력 목격 및 경험과 학교폭력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지영(2004). 초등학생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초록(2017). 가정폭력 및 학교부적응이 학교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혜은(2013). 특성화고 여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친구관계 질의 조절효과.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은(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폭력, 자녀학대, 형제폭력과 학교폭력 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민경, 조한익(2019). 가정학대가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6(1), 17-38. doi:10.16983/kjisp.2019.16.1.17
- 최효진(2006).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피해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10). 아동 및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인식 및 예방교육실태 조사. **연합뉴스**. http://wsp.mogef.go.kr/wngonet/home/ccb/pr/GCH_PrDetail.do?search=&keyword=&page=80&seq=2690에서 2010년 11월 22일 인출
- 허진아(2017). 청소년의 학대피해가 폭력피해에 미치는 영향: 일탈적 생활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egg, C. B., & Mazumdar, M. (1994).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a rank correlation test for publication bias. *Biometrics*, 50(4), 1088-1101.
- Borenstein, M., Hedges, L., Higgins, J., & Rothstein, H. R. (2009). *Computing effect sizes for meta-analysis*. Chichester: John Wiley & Sons, Ltd.
- Cohen, J. (1977). *Statistical power for the behavioral sciences* (1st Ed). Hillsdale, New Zealan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oper, H. (1998). *Synthesizing research: A guide for literature review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Duval, S., & Tweedie, R. (2000). Trim and fill: A simple funnel-plot-based method of testing and adjusting for publication bias in meta-analysis. *Biometrics*, 56, 455-463. doi:10.1111/j.0006-341x.2000.00455.x
- Egger, M., Smith, G. D., Schneider, M., & Minder, C. (1997). Bias in meta-analysis detected by a simple, graphical test. *BMJ*, 315, 629-634. doi:10.1136/bmj.315.7109.629
- Evans, S. E., Davies, C. A., & DiLillo, D. (2008).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 meta-analysis of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3(2). 131-140. doi:10.1016/j.avb.2008.02.005

Glass, G. V., McGaw, B., & Smith, M. L. (1981). *Meta-analysis in social research*.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Kolbo, J. R., Blakely, E. H., & Engleman, D. (1996). Children who witness domestic violence: A review of empirical literatur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2), 201-293. doi:10.1177/088626096011002010

Valentine, J. C., Pigott, T. D., & Rothstein, H. R. (2010). How many studies do you need? A primer on statistical power for meta-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and Behavioral Statistics*, 35(2), 215-247. doi:10.3102/107699860934691

Wolfe, D. A., Crooks, C. V., Lee, V., McIntyre-Smith, A., & Jaffe, P. G. (2003). The effects of children'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 meta-analysis and critiqu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6(3), 171-187.

Meta-Analysis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chool and Domestic Violence

Eun Joo Go

Ph.D, Dep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Young Suk Zang

Ph.D, 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Sungkyul University

Ko Eun Kim

Ph.D, Dep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thoroughly analyze the correlation effect size between domestic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by meta-analyzing previous studies on the correlation between school and domestic violence.

Methods: For this purpose, meta-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selected research material, which consists of national research data collected from various databases from 2001 to April, 2019. 16 thesis and 9 papers on the correlation between school and domestic violence were selected. A random effect model analysis based on the homogeneity examination results was performed on the selected data.

Results: The results showed, just as Cohen (1977) proposed, that the correlation effect size between domestic and school violence was 0.25, which is moderate. This is a somewhat lower number than the previous studies on the same subject presented. Of the sub-categories of domestic violence, physical violence and psychological violence appeared to have a correlation effect size of 0.34 and 0.28, respectively, with physical violence showing the highest correlation effect size. Of the types of domestic violence, witnessing spouse violence and experiencing neglect appeared to have a moderate correlation size effect of 0.24. All of these resul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utilized meta-analysis as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ethod to analyze the correlation effect between domestic and school violence. The results presented may lead to discussions on the subject's social implications, limits, and propositions for future studies.

Keywords: meta-analysis, school violence, domestic violence, family violence, child violence, child abuse

Received July 26, 2019

Revision received August 27, 2019

Accepted September 15, 2019